

# 수원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고단33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##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

사건	2014고단3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피고인	A
검사	민수영(기소), 김성현(공판)
변호인	변호사 B
판결선고	2014. 11. 7.

### 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### 이 유

#### 1. 공소사실

피고인은 2014. 3. 4. 08:26경 용인시 기흥구 C, 101동 204호(D빌라)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"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?"라고 말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#### 2. 판단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'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'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.

이 사건의 경우,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,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렇다면,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.

**판사 민병국**